

## 발기부전은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이다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

**발** 기부전이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미네이폴리스 심장연구 재단의 마크 프리츠키 박사는 99년 11월 열린 미국 심장학회(AHA)연례 학술대회에서 비아그라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발기부전 환자의 약 40%가 심장동맥에 이상증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발기부전은 심장질환의 조기경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 나라에는 성기능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가 200백만이 넘을 것이라는 남성의학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기능 장애를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화의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95% 이상이 되며 그나마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불과 5% 정도라고 한다.

성 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포기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부인의 책임이 큰 경우가 많다. 이 나이에 그 만큼 많이 했으면 됐지 뭐가 미련이 있는냐고 야단하므로 남편의 성기능장애 뒤에 숨은 중요한 질병까지 체크할 기회를 잃게 된다.

발기부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심인성(정신적인 원인)과 기질성(육체적인 병에 의함)으로 나눌 수 있고 두 원인이 같이 공존하는 혼합형이 있다.

기현성 원인의 경우에는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생긴 때,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며 온몸에 후유증이 안 생기는 데가 없으며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음경해면체에 혈관의 변화에 약해서 올 수 있으며 어떤 약물을 오래 복용하였을 때 약물에 의한 부작용, 흡연, 음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신경계통의 절단사고(척추손상, 골반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요도를 통한 전립선절제술, 전립선 전체를 들어내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남성 호르몬의 부족, 원인불명의 경우 등등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 혈압이 높다든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얼마전 발기가 안된다고 찾아온 40대 남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협심증을 발견하였다. 이 사람은 과거력을 묻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느라 술을 많이 하였  
고 담배는 하루에 40개비 정도로 골초라  
고 자랑한다.

여러 가지 검사에서 협심증이 발견되었고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었다. 진찰을 하고나  
서 협심증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깜짝 놀라  
며 몇 달 전부터 가끔 가슴에 조여드는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였다. 어느 통계에 의하  
면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남성 중 10~15%는 중증의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발기부전  
은 전체 환자의 1/3이상으로 발기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장병 환자나 배우자는 성행위 중 심장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성생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관계 중 심장박동수가 가장 높아지는 때는 절정감을 느끼는 순간으로  
평균 심장박동이 분당 120~150회의 심장박동이 15~30초간 지속된다.  
두개 층의 연속된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심장이라면 성생활에 지장  
이 없을 것이다.

성행위 중 사망하는 복상사의 80%이상은 혼외 관계에서 일어난다. 혼  
외정사는 평소보다 지나친 흥분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장의 부담을 가  
중시킨다.

그러나 이미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혼외정사만 아니라면 의사의  
지시와 치료에 따라 얼마든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심장  
병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심장이 나쁜 사람이 발기가 잘 안된다고 무턱대고 시중에 불법으로 나  
도는 비아그라를 아무렇게나 사먹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심장발작을 일  
으켜 사망할 수 있다. 발기부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뇨기과를 찾  
는다면 치료도 잘 될 것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질병도 발견하여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PPFK**

